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는~ 건강입니다

# 덕유산 100만 송이 眞 한방울이 심산의 맑은 공기 그대로~

청다향 향로는 수작업으로 만든 최고가치의 명품 투각 청자 다향기입니다.

※ 상단용 청다향 다향기는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소승이 직접 방문하여  
향 시흥을 시연하여 드립니다.



법당 상단용 청다향 다향기 (실용신안특허 제0164576호)  
| 높이 370cm | 구성 : 향로+코끼리향로+주전자향로+향 5mg 2개  
| 가격 110만원

쌀이 술을 만나야 밥이 되듯이... 향기도 제대로 된 향로를 만나야 참 향을 만들어 냅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솔잎, 피부가 좋아지는 편백 등 산야초 향원액을 오랜 세월 숙성의 기다림으로 부처님 제일공양으로 태어납니다.

### 청다향이란?

덕유산 사람 발길 없는 천혜의 자연지대에 자생하는 차(茶)나무, 잎, 열매 속에서 극소량 머금은 향기이며 나무가 천적을 물리치는 황금 빛 에센스 원액 100% 향기 성분을 말합니다. 건강에 좋은 무공해 청자 다향기로 건강의 온도에서 피어나게 되는 공법이 특유의 기술입니다.

### 제조 및 연구분석 판명

초자연의 녹황색 차, 잎 열매의 향 성분을 증류로 뽑아 5년 숙성으로 건강의 향기가 태어난 청다향이며 과학적 판명을 위하여 서울 동국대 식품공학과 연구분석 실험으로 51개 향기성분으로 판명된 순수원액 향입니다.



### 법당 중단용 청다향

- 높이 : 260cm
- 구성 : 향로 + 주전자 향로 + 향 3mg 1개
- 가격 : 33만원



### 더 좋은 청다향 이용하는 법

- ◆ 가습기능 : 향 원액의 양과 온도조절을 통해 향기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원액에 물을 섞어 가습기능도 함께 합니다.
- ◆ 야간 조명기능 : 야간에는 향로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와 수행과 명상을 함께 합니다.
- 1) 연꽃 향함에 생수를 큰술 3스푼 정도 넣고, 청다향 원액 2-3 방울을 떨어뜨린 후 조명을 켜시면 은은한 가습과 향기가 피어납니다.
- 2) 향기의 강약을 조명조각기로 줄이고 늘여서(약 8-9)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향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3) 3-4시간 후 청다향 액이 완전 증발한 후 보충 사용하시면 숲속의 향기를 계속 만끽할 수 있습니다.

- 4) 녹황색 조명은 최고 40w로 잠시 사용하셔도 전기료 부담이 없습니다.
- 5) 자연 가습으로 숲속향이 피어나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 청다향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

- 명상을 위한 아늑한 공간, 향기로운 대화의 실내공간,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방 등
- 1) 환기 시설이 원활하지 못한 공간
  - 2) 도심속 포교당 : 태우는 연기 때문에 향로가 없는 법당
  - 3) 평소 건강을 염려하여 향을 태우지 못하는 스님
  - 4) 108배 등 기도정근으로 건강 호흡이 필요한 법당
  - 5) 친견실 및 대화의 공간에 자연의 숲속 향기가 필요한 곳



### 개인향로

- 구성 : 두꺼비 연잎다기 + 향 3mg 1개
- 가격 : 6만원



### 차량용향로

- (차량에 부착가능 : 스트랩식, 줄음이 짝 - 출발하기 전 한방울)
- 구성 : 두꺼비 다기 + 향 3mg 1개
  - 가격 :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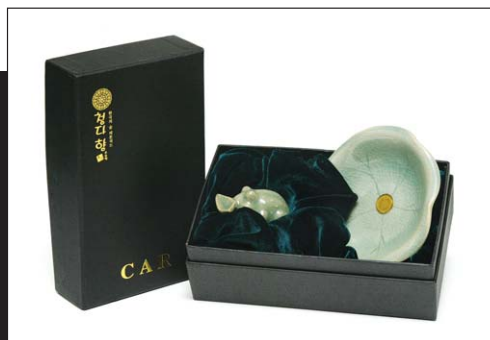
## 상단용 청다향 다향기 출시기념 나눔 대축제

### 5종세트 무료 보시 (선착순 2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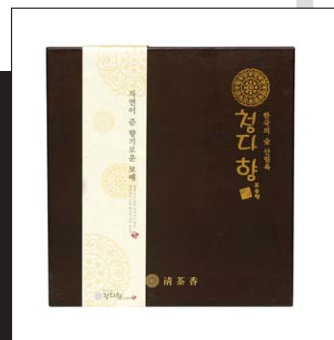
상단용 청다향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21분께는 중단용, 개인용, 코끼리 및 연잔, 부자되는 차량용 두꺼비 5종(56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청다향 황금유 개별 판매 • 용량 5m / 5만원 • 용량 3m / 3만원



품위있고 안전한 포장



청다향 안전 포장 / 품위있는 디자인

## “부처님께 공양 올릴 향 만드는 것이 수행” 청다향 만든 달마사 청오 스님



### 청다향 청오(淸梧)

1970 정각향 (독립운동가 송전도옹으로부터) 전수 - 대구 대명동  
1988 서울 동국대 불교대학원(불교학) 졸업  
2003 한국최초 보습향 개발  
2004 청다향 본포 창립  
2007 청다향 황금유 개발원 설립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산천 초목의 풀잎과 꽃잎에 가득한 향을 따는 순간 느껴지는 상큼함, 그 순간을 잡고 싶었습니다” 덕유산 자락 산천을 누비며 사시사철 꽃잎을 따는 향에 미친 스님이 있다. 얼마나 꽃잎을 따 땀과 찰기를 반복했을까. 한겨울에도 땀으로 온몸이 젖으며 겪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청다향 천연 향 제품을 개발한 이는 청오 스님(거창 달마사 주지·사진이다).

열세살 때 대구 정해사에서 정각향 창시자인 고흥도옹으로부터 향만들기를 배웠지만 향만들기를 포기했던 스님은 어느 날 일간지에서 “태우는 향이 담배연기보다 더 나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기사를 접하고 다시 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스님이 만드는 향은 수십가지 야생천연재료로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더러 효과가 좋다. 얼마 전에는 이광근 교수(중국대 식품공학과)의 도움으로 성분분석까지 마쳤다. 이 교수는 “청오 스님이 만든 향은 아로마테라피 형식으로 분석 결과 천연재료의 각 성분을 잘 살렸다”고 말했다.

속·이카시아·박하·솔잎 등 덕유산 자락의 모든 초목을 향재료로 사용한다는 스님은 “이카시아는 개화 후 2-3

일 안에 채취해야 하고, 솔잎은 한겨울을 내린 뒤 채취하는 것이 좋다. 풀잎마다 꽃잎마다 채취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말해 재료 채집부터 보존 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0ml 한병의 엑기스를 증류해 얻기 위해 한가마니의 풀잎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손수 재료를 채취하고 향을 만든다고 한다. 또 향을 발산하기 위한 청자로 된 향로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며 공부라는 스님은 “공양 중 향공양이 으뜸 아니겠나”며 제대로 된 우리 향을 통해 불자들의 건강과 신심을 북돋고 싶다고 말했다.